

‘포커스 J’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디며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은 지역의 다양한 정책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불어 전북의 미래발전 전략 제시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은 연구보고서와 이슈브리핑, 전북경제동향, 인포그래픽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과 소통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포커스 J’를 선보입니다.

‘포커스 J’는 특집과 정책논단으로 구성돼 1년에 두 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특집에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쟁점을 정리해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책논단에서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묶어 발간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확산을 꾀하였습니다. 연구원장으로서 저는 ‘포커스 J’ 발간을 계기로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단하고 환자를 추적하여 치료하는 발 빠른 대응으로 K-방역을 선보이며 외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창간호 특집에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였습니다. 산업과 고용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개요 및 현황을 정리하고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대응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책논단에서는 식품과 주거, 교육, 인구, 관광,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북대도약’의 토대로 작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